원순 스님, 쉬운 우리말 '화엄경' 완역

3월 3일, 출판 기념 법회
10년 정진 '화엄경' 완역
수행과 번역 원력의 결실
"부처님 마음이 화엄세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이 원순 스님이 완역한 〈대방광불화엄경〉 부처님 전에 봉정하고 축하하고 있다.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장 원순 스님이 10년에 걸친 집필 끝에 〈대방광불화엄경〉을 완역하고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부산동명불원은 3월 3일 대웅전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출판 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원장 원순 스님을 비롯해 이시영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이사장, 김성규·안수근·강석진·이욱태 이사, 성재곤 신도회장, 이원옥·이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원순 스님은 편찬사를 통해 화엄의 핵심을 '마음'으로 설명했다.

스님은 "화엄세계는 각자가 제 모습대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화엄의 이치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어렵다'고 말하며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데서 멈추지 말고,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마음을 지니고 살면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 세상을 밝히게 된다"며 "불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다만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왔을 뿐"이라며 "한 가지 마음을 두고 정진하다 보니 자연스레 원고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시영 이사장은 축사에서 경전 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불자들뿐 아니라 스님들 사이에서도 경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원장 스님께서는 이러한 인식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새롭게 정리하고 엮으셨다"고 밝혔다.

성재곤 신도회장도 축사를 통해 원순 스님의 수행과 원력을 강조했다. 성 회장은 "긴 세월 동안 오직 수행과 번역에만 매진해 이 대업을 성취하신 원장 스님과 그 기쁨을 함께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화엄경〉은 그 방대함과 깊이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는 높은 산과 같은 경전이었다"며 "그러나 원장 스님의 멈추지 않는 정진과 깊은 원력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간행된 〈화엄경〉은 전 12권으로 엮였다. 한문 원전을 직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층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어법에 맞춰 재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난해한 교리 체계와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오랫동안 '읽기 어려운 경전'으로 인식돼 왔던 〈화엄경〉을 독서 가능한 텍스트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순 스님은 198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이후 해인사·송광사·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경전 번역에도 힘써 〈명추회요〉를 옮긴 〈마음을 바로 봅시다〉를 비롯해 〈한글 원각경〉, 〈선요〉, 〈서장〉, 〈육조단경〉, 〈몽산법어〉 등을 번역했다.

이번 〈화엄경〉 완역은 교학과 수행, 포교를 연결한 작업이라고 평가된다. 일부 수행자 중심의 텍스트에서 벗어나, 신행 대중과 교육 현장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향후 학술 연구와 강설, 수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07주년 3.1절, 불교 독립운동을 기억합니다"

범어사, 3 · 1운동 기념식 봉행
"호국 · 독립정신 받들 것" 다짐


범어사는 3월 1일 범어사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3 · 1운동 107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범어사 스님들과 명정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개된 3·1만세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호국·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107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율학승가대학원장 원창 스님, 재무국장 도은 스님, 승가대학 학감 지원 스님을 비롯해 백명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추도사에서 "오늘 범어사 3·1운동 107주년 기념식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향기를 기억하고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자리"라며 "범어사는 부산 3·1운동을 주도한 지방학림과 명정학교가 있던 곳으로, 불교개혁과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곧 독립 정신과 3·1운동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은 백명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범어사는 3·1운동 당시 스님들과 명정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되새기고 독립 정신을 후대에 이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축총림, 교·율·염불 전통 잇는 졸업식

3월 1일 설법전서…21명 졸업
계율 · 염불 · 교학 전통 잇는 법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율학과 염불, 교학을 아우르는 승가교육의 결실로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통도사는 3월 1일 설법전에서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제20회, 통도사 염불대학원 제6회, 통도사 승가대학 제69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영축율학승가대학원은 4명, 통도사 염불대학원은 13명, 승가대학은 4명의 졸업생을 각각 배출했다.

이날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반은 지난 3년간 역주한 〈사분율 행사초 자지기〉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혜명을 잇고자 발심 출가한 졸업생들이 수행 정진의 결실을 맺었다"고 축하했다.

율주 덕문 스님은 훈사에서 "자장율사의 지혜와 정신을 선양하며 이 시대를 밝히는 수행자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불대학원장 법산 스님은 "초심을 잃지 말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은 "수행자의 사명을 다해 세상을 밝히는 선지식으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총림 율학대학원·승가대학 졸업식

3월 2일 관음전서…9명 졸업
"동문 자긍심 갖고 정진하길"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3월 2일 관음전에서 '제45회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 및 제66회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 1명, 연구과정 2명, 해인사 승가대학 6명 등 총 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율학승가대학원 유초 스님, 총무원장 교육상은 승가대학 견진 스님이 수상했다.

이날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승가대학장 원걸 스님에게 2026년 목적사업 특별활동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과 수행도량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주지 혜일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강원과 율원의 틀을 벗어난다고 해서 해인사와의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어디서든 수행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동문회장 동진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해인사 승가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졸업생들이 교단과 사회 속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지혜와 자비를 갖춘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분당 대광사 '명상집중수행 템플스테이'

2월 28~3월 1일, 좌선 · 행선 반복
정준영 교수 초빙 '알아차림' 정진



분당 대광사(주지 경혜 스님)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를 초빙해 '명상집중수행과정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대광사의 템플스테이는 명상 초심자를 위한 '내 마음 주인 되기' 과정과 중상급자를 위한 '명상집중수행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집중수행은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간 쉼 없이 좌선과 행선을 반복하는 고강도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5개 조로 나뉘어 정준영 교수와 단체 인터뷰를 통해 수행 중 겪는 통증이나 쏟아지는 졸음, 의문점 등을 즉각적으로 점검받으며 깊은 몰입을 이어갔다.

정준영 교수의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한 지도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어려운 위빠사나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줘 수행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대광사 주지 경혜 스님은 "앞으로도 일반인과 수행자 모두를 위한 명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졸업·입학식

수행과 배움 잇는 교육 도량



천태종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 부산금강불교대학이 2월 28일 지관전에서 수료식과 졸업식, 입학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교법사과 32명, 불교학과 64명이 수료했으며, 신입생 70여 명이 입학했다.

학장 용암 스님은 교법사과 대표 허복식 학생과 불교학과 대표 김미영 학생에게 각각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길근 학생에게 천태종 교법사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입학허가와 신입생 선서가 진행됐으며, 불교학과와 교법사과정 수료생들은 발전기금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

용암 스님은 훈사에서 "졸업과 입학의 여정에서 마음의 분별을 거두고 기도정진을 통해 참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삼광한글학교 33회 졸업식 및 34회 입학식은 초등학력인정과정 9명, 중학학력인정과정 12명이 졸업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초등 15명, 중학 15명, 문해반 30명이 입학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범어사서 정기연합법회

2월 28일, 11개 대학 한자리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 이하 부산지부)가 2월 2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2월 정기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열린 이번 법회에는 부산지역 11개 대학 법우들이 함께 모여 청년대학생 전법과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희철 부산지부장은 "올해 템플스테이, 삼사순례, 연등 제작 등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겠다"며 "불국토 부산이 청년대학생 전법에 앞장서는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문을 맡은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관심과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깊어지는 불교, 공감의 불교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부처님 전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조계종聯,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3월 3일 태화강 특설무대서
향어 방생…자비의 쌀 나눔



울산불교조계종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3월 3일 태화강 국가정원 둔치 특설무대에서 울산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연합회와 남구청이 함께 뜻을 모은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향어 1500마리를 태화강에 방생하고, 백미 10kg 200포를 남구청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울산과 국가의 여러 어려움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생의식을 마련했다"며 "가장 큰 방생은 욕심과 번뇌에 지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미물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웃까지 함께 보듬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태화강 둔치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성대히 봉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방생은 불교의 생명 존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채권 부구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배려와 나눔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